

현대모비스, 작년 특허 출원 2100개... 미래차 핵심기술 주도

직무발명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
자율주행·커넥티비티·전동화 분야
연구원 특허 발굴 단계별 밀착 지원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힘을 싣는다. 신기술·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친환경차 등 미래차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출원한 특허가 2100여 건을 넘어섰다. 2018년과 2019년 대비 각각 3.2배, 1.8배 증가한 실적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출원한 직무발명 중 우수 사례를 선



조성한 현대모비스 사장(앞줄 가운데)이 용인 기술연구소 내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우수 발명을 제안한 직원을 포상하는 우수 직무발명 시상식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해 해당 조직과 직원에게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특허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해 선정된 직원에게 그에 따른 실적 보상금을 지급했다. 실적 보상금은 특허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명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보상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허는 '커티 에어백 풀딩 기술', '차량용 오디오 신호 조절 전기회로 시스템' 등 총 46건으로 대부분 현대모비스의 핵심 부품 관련 특허

들로 이뤄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2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한 2100여 건 중 절반 정도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분야에서 나왔다. 나머지는 차량안전, 램프, 모듈 등 핵심부품 분야의 특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핵심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R&D 신기술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진행 단계별로 연구원들의 특허 발굴을 위해 밀착 지원하고 있다. 개발 계획 초기부터 연구개발과 특허 담당자, 기술별 전담 변리사로 구성된 지원조직이 특허 개발 워크숍에 함께 참여해 신기술과 공백 기술 분야의 특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수경현대모비스 기획부부장(부사장)은 "직원들의 발명 아이디어가 회사

의 미래 성장 동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회사 전체에 확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회사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우수 발명 포상 외에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개최해 직원의 아이디어를 미래 신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스타트업 챌린지', 연구원들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테크 챌린지' 프로그램 등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신기술 관련 사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분사까지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나 일상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실제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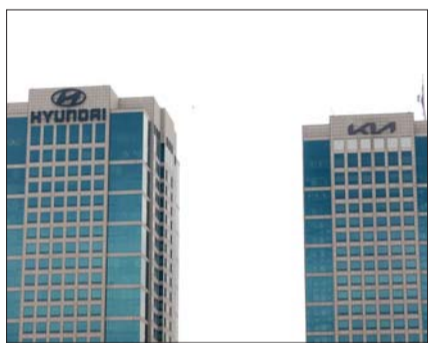
현대차, 협력사 납품 대금 1.9조 조기 지급

3000여 곳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 상생 활동
예정된 지급일 보다 최대 10일 빨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8767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약 306억원을 구매,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 6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추석 등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 73억원, 1조 1087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자금이 2, 3차 협력사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306억 원을 구매했다. 지난해 명절에도 각각 186억원, 285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네이버, 임직원에 31억 규모 자사주 지급

임직원 90명에 8820주

네이버가 소속 임직원 90명에게 8820주(31억3110만원)의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1일 공시했다. 취득 단가 기준은 지난달 28일 종가인 35만5000원이다.

한성숙대표는 가장 많은 1000주의 자사주를 받았으며, 이는 총 3억5500만원에 이른다.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채선주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각 700주씩(2억4850만원) 받았다.

성과급으로 지급된 자사주는 보호에

수기간이 없어 지급 받은 후 즉시 처분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그동안 경영성과에 따라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는 현금과 자사주를 동시에 지급했다. 직원 격려와 주가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5조3041억원, 영업이익 1조 2153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1.8%, 5.2%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선지급

270억원 규모 협력사 납품 대금
'설 명절 클린 KT 캠페인' 시행

KT는 설 연휴를 앞두고 27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오는 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린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지난해에도 설 연휴에 약 170억원, 추석 연휴에 약 423억원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T는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설 명절 클린 KT 캠페인'을 시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 캠페인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시행된

다.

이 기간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KT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수취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부득이하게 선물을 보내올 경우 발송인에게 거절 서한을 동봉해 반송하거나 각 지역 아동센터나 봉사단체에 기증한다.

KT SCM전략실장 신금석 상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KT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국내 완성차 업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차량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에도 설 연휴를 맞아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함께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8~10일 진행되는 이번 무상점검에는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모든 제작사가 참여하며, 제작사별 전국 직영·협력 서비스센터 2219곳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한다.

점검 기간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제동장치 상태, 타이어의 공기압·마모 상태, 냉각수·각종 오일류, 휴즈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LGU+, 창원시와 스마트 수소산업 추진

'2040 창원 수소 비전' 일한

LG유플러스는 창원시와 '2040 창원 수소 비전'의 일환으로 스마트 수소산업 추진에 협력하고, 스마트 수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는 '2040 창원 수소 비전' 아래 일상 생활 속 수소 기반 친환경 에너지 지급 체계 구축·운영과 수소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신규 수소 관련 사업 발굴 및 유치에 상호 협력한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5G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 ICT 기술을 적용한 수소정책관련 세부 사업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창원시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함께 선보인 바 있는 '스마트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를 정식 운행한 창원시의 스마트 수소버스에 5G 기술과 연동된 특수 디스플레이



지난 1일 허성무 창원시장(왼쪽)이 수소모빌리티 연구본부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형원시

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고정밀 측위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는 교통상황과 버스이동정보 등을 제공하고 탑승객에게는 날씨정보, 역 주변 상점의 할인 정보 등을 알려준다.

LG유플러스 최택진 기업부부장 부사장은 "LG유플러스의 우수한 5G 네트워크 및 ICT 기술 역량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수소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창원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